

## 남미 주요국가 농산물무역 동향

남미는 최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중심으로 무역을 확대하면서 고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MERCOSUR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비롯하여, 칠레 등 5개국의 농산물 무역동향을 살펴본다.

남미 국가들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공업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되었지만, 남미국가들은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01년 기준 각국의 전체 수출 중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르헨티나 48.2%, 파라과이 45.2%, 우루과이 29.5%, 브라질 21.1%, 칠레 9.8% 등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이 광활한 경지면적을 바탕으로 인구규모, 즉 국내수요 보다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여력이 있는 이들 국가들은 증산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더욱 늘릴 것이다.

### 1. 곡물

남미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2001년 총 1,095만 톤의 밀을 수출하여 10.2%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2002년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의 밀수출국이었는데 주요 수출시장은 브라질,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등지이다. 밀이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비중상으로는 대두 다음으로 4위를 차지(1위: 대두박, 2위 대두유, 3위 대두, 4위 밀, 5위: 옥수수)한다.

나머지 국가들도 소량의 밀을 수출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밀 수입국들이다. 브라질의 경우 2002년 66만톤의 밀을 수입하여 농산물 수입중 밀이 1위를 차지하였다. 칠레와 우루과이도 각각 31만톤, 23만톤의 밀을 수입하였다.

표 1 남미 5개국의 밀 수출 실적, 1990~01(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0	4,704,500.03	0	0		0
1991	5,558,400.00	0	700	0	7,300.00
1992	7,024,700.00	0	0	0	0
1993	4,295,000.00	0	100	0	0
1994	7,436,800.00	0	0	0	0
1995	4,176,600.00	0	0	0	0
1996	9,614,162.00	n.a	n.a	n.a	n.a
1997	8,944,750.00	2,190.00	56	249,116.00	226,351.00
1998	8,347,000.00	3,622.00	404	2,216.00	87,920.00
1999	10,284,326.00	967	n.a	31,062.00	71,155.00
2000	10,703,359.00	558	5	71,466.00	29,543.00
2001	10,952,400.00	73,310.00	23	53,811.00	n.a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collections?subset=agriculture>

옥수수 수출에서도 아르헨티나가 남미대륙에서 1위를 점한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920만톤이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출국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 밀의 주요 수출시장은 칠레, 중동, 미주 지역 등이다. 브라질도 500만 톤 정도의 옥수수를 수출하는 세계 4위의 수출국이다. 그러나 옥수수는 대두와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두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옥수수 생산이 감소하여 수출은 감소할 수 있다.

표 2 남미 5개국의 옥수수 수출 실적, 1990~0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0	3,341,600.00	0	0	0	0
1991	5,352,500.00	300	21,000.00	0	700
1992	5,118,899.98	100,000.00	0	0	29000
1993	4,410,900.00	2,500.00	6,900.00	0	0
1994	5,633,100.00	0	0	0	0
1995	5,598,000.00	0	0	0	0
1996	10,518,445.00	n.a	n.a	n.a	n.a.
1997	11,762,542.00	11,665.00	57,549.00	300,000.00	32010
1998	9,957,000.00	7,343.00	45,873.00	250,100.00	54364
1999	8,173,048.00	6,921.00	39,946.00	257,192.00	114420
2000	11,833,548.00	2,240,479.00	18	478,449.00	78781
2001	9,201,600.00	5,000,000.00	85	191,565.00	23000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collections?subset=agriculture>

대두수출은 브라질이 세계 및 남미 1위이지만 대두박 수출은 아르헨티나가 남미는 물론 세계 1위를 점한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채유종자 쇠분시 설이 많이 발전하여 대두제품의 수출에 치중하는데도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브라질에 비해 인구수도 절대적으로 적고 돈육 및 육계산업 규모도 적어 전체 대두박 생산 중 내수용은 6% 정도인데 비해, 브라질은 생산된 대두박의 75%를 브라질내에서 소비한다.

브라질의 대두수출의 경우, 최근 년에 생산량이 5,200여만 톤으로 과거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고, 미국에서 한발에 의한 생산 감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수요증가에 의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2003년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전년대비 41.5%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수출하는 대두 및 대두관련제품은 주로 중국, 태국, 미주 지역 등지로 수출됨.

표 3 남미 5개국의 대두박 수출 실적, 2000~02(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계
2000	12,930,670	9,389,190	0	410,760	0	23,394,490
2001	14,624,680	11,270,730	0	73,550	0	26,841,760
2002	16,198,740	12,517,150	9,010	130,410	0	29,555,860

자료: FAO, *Trade Yearbook* 2002, 2004.

## 2. 과일

남미 국가 중 과일의 주요 수출국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인데 칠레의 과일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요 과일별 칠레의 수출순위를 보면 먼저 남반구에서 칠레는 포도, 사과, 복숭아, 아보카도, 딸기 수출에서 1위를 점하고 배와 키위 수출은 2위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는 칠레는 제 1위의 포도수출국이고 아보카도 수출은 2위를 점함. 그밖에도 배, 키위 수출은 세계 3위, 복숭아 수출은 5위이다.

브라질은 세계 제1의 오렌지 주스 수출국이면서 멜론, 망고, 파파야 등 열대과일을 유럽에 집중 수출한다. 표 19, 20은 남미 5개국의 사과와 포도의 수출실적을 나타내는데 두 품목 모두 칠레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2002년 칠레의 사과와 포도 수출량은 각각 54만 8,000톤과 65만 5,000톤임.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이다.

표 3 주요 과일별 칠레의 수출순위

과일별	남반구	세계
포도	1	1
사과	1	2
복숭아	1	5
배	2	3
키위	2	3
아보카도	1	2
딸기	1	n.a.

표 4 남미 5개국의 사과 수출 실적, 2000~02년(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계
2000	95,895	64,480	414,868	0	4,314	579,559
2001	194,822	35,786	614,759	0	3,822	849,191
2002	165,944	65,927	548,194	0	31,654	783,233

자료: FAO, *Trade Yearbook 2002, 2004.*

표 5 남미 5개국의 포도 수출 실적, 2000~02년(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계
2000	27,095	14,363	676,474	2,985	209	721,160
2001	26,629	20,660	630,771	6,522	95	684,719
2002	37,353	26,360	654,932	11,677	5	730,513

자료: FAO, *Trade Yearbook 2002, 2004.*

### 3. 축산물

기본적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은 넓은 목초지에서 방목되어 생산된 쇠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출국이다. 쇠고기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주요 수출국이고, 돼지고기는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닭고기는 브라질이 주요 수출국이다.

2002년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물량은 43만 톤으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출국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브라질 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쇠고기 수출이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주요 수출시장은 EU, 칠레, 러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등이다. 브라질에서는 방목으로 사육되고 대두박 등 국내에서 대량으로 식물성 사료가 조달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연방정부 차원의 구제역 방지 대책이 인정을 받고 있어 EU에 대한 수출이 증가 추세이다.

2001년 구제역이 발생한 아르헨티나는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2002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선육 보다는 가공육을 주로 수출된다. 2002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9위의 쇠고기 수출국이다. 주요 수출시장은 구제역 오염국인 EU,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이다.

표 6 남미 5개국의 쇠고기 수출 실적, 2000~02년(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계
2000	159,837	188,656	111	41,866	170,999	563,193
2001	43,036	368,287	72	44,604	103,898	566,399
2002	160,031	430,271	601	13,960	148,884	756,370

자료: FAO, *Trade Yearbook 2002, 2004.*

돼지고기 역시 브라질이 남미의 최고 수출국이다. 국제시세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대형 식육업체를 중심으로 생산 확대가 이루어져 2002년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20여만 톤이 늘어난 50여만 톤에 이른다. 환율평가 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러시아 등 새로운 시장 확보에 성공하여 러시아가 브라질 돼지고기 수출의 80% 가량을 수입한다. 그 밖에 주요 수출시장은 홍콩, 아르헨티나 등이다.

표 7 남미 5개국의 돼지고기 수출 실적, 2000~02년(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계
2000	10	116,000	7,510	20	0	130,020
2001	40	247,370	13,900	170	0	275,660
2002	40	449,200	27,810	80	0	526,020

자료: FAO, *Trade Yearbook 2002, 2004.*

칠레의 돼지고기 수출량도 연간 3만톤이 안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칠레로부터 삼겹살을 많이 수입한다.

표 8 남미 5개국의 닭고기 수출 실적, 2000~02년(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계
2000	16,616	949,247	18,859	45	326	990,313
2001	17,193	1,317,265	31,233	30	504	1,371,868
2002	27,389	1,689,082	20,407	0	923	1,741,701

자료: FAO, *Trade Yearbook 2002, 2004.*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이며 세계 2위의 수출국이다. 2002년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물량은 169만톤에 이른다. 특히 최근 년에 중국 및 EU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브라질은 닭의 사료원료가 되는 대두박과 옥수수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비교우위를 지닌다. 브라질 육류 수출의 주요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홍콩, 일본 등이다.

#### 4. 종합

<표 9>는 남미 5개국의 10대 농산물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는 대두박, 대두유 등 대두제품과 대두의 수출이 상위 1,2,3위를 이루어 수출의 주종을 이룬다. 소맥과 옥수수는 그 뒤를 이어 4, 5위의 수출농산물이다. 브라질의 상위 5개의 수출품목은 대두, 대두박, 닭고기, 커피, 원당 등이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은 포도, 포도주, 어분, 사과, 아보카도 등 과일이 주종을 이룬다. 돼지고기 및 돼지 수출도 6,7위를 기록, 칠레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요한 수출품목이다.

남미 5개국의 주요 수입농산물 내역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대두, 조제식품, 바나나, 면화, 커피 등이다. 아르헨티나가 대두 수입이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대두유와 대두박 수출을 위해 브라질로부터 원료 대두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9 남미 5개국의 10대 수출농산물, 2002년(1,000달러)

순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대두박	2,561,391	대두	3,031,984	포도	658,808	대두	58,721	쇠고기	249,723
2	대두유	1,345,506	대두박	2,198,860	포도주	603,772	대두박	20,169	양모	131,143
3	대두	1,118,763	닭고기	1,335,051	어분	318,482	쇠고기	19,896	도정미	94,715
4	소맥	1,097,362	커피	1,195,531	사과	279,345	면화	9,585	맥아	50,030
5	옥수수	924,808	원당	1,111,343	아보카도	127,864	대두유	6,687	전지분유	43,747
6	해바라기씨	535,612	정제설탕	982,301	조제과실	118,486	담배	3,981	담배	38,263
7	쇠고기	345,216	담배잎	977,670	돼지고기	105,564	옥수수	3,760	치즈	32,728
8	전지분유	194,629	농축오렌지	869,308	돼지	104,657	소	3,193	현미	31,738
9	담배잎	147,143	대두유	778,058	조제식품	94,969	유지류	2,981	해바라기씨	30,455
10	배	135,467	쇠고기	775,855	복숭아	84,003	담배넝	1,829	탈지분유	18,859

자료: FAO database(www.fao.org/es/ess/)

표 10 남미 5개국의 10대 수입농산물, 2002년(1,000달러)

순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대두	45755	소맥	878167	쇠고기	158333	담배	37982	소맥	35060
2	조제식품	42225	대두	174671	옥수수	117062	담배잎	25687	조제식품	25870
3	바나나	38809	맥아	164625	지방조제품	107872	알콜음료	16606	보리	22977
4	면화	22611	건조전지분유	147069	대두박	86731	조제식품	15606	양모	20701
5	커피	19373	고무	93013	조제식품	51305	파이껍질	8468	마태차	19517
6	고무	18223	조제식품	87178	정제설탕	45347	담배제조품	7913	설탕	12596
7	코코아분	15674	코코아콩	85676	소맥	44220	맥주	7444	담배잎	12265
8	견과류	15131	면화	64166	애완동물사료	28560	초콜렛	7366	염장쇠고기	9567
9	코코아버터	14468	포도주	59828	대두박	27774	설탕	6766	알콜음료	9063
10	토마토페이스트	13907	대두박	58275	알콜음료	25352	옥수수	6718	파이껍질	8895

자료: FAO database(www.fao.org/es/ess/)



브라질은 소맥, 대두, 맥아, 전지분유, 고무 등을 많이 수입하는데 특히 소맥은 자국이 소맥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데다가 인구가 많아 자급을 이루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칠레의 주요 수입농산물로는 쇠고기, 옥수수, 지방조제품, 대두박, 조제식품 등이다.

결론적으로 남미 국가들도 자국의 부존여건 등에 유리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한편, 생산이 불리하거나 부족한 농산물은 수입에 의존한다. 남미 전체로는 대두, 밀, 옥수수 등의 곡물과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그리고 포도, 사과, 아보카드 등의 과일을 주로 수출된다. 국가별로 대두, 옥수수, 밀 등을 수입하지만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2001년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수출은 109억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13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권오복 obkwon@krei.re.kr 02-3299-4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